

큰스님 수행한담

불자일 수 없습니다”



은사인 보광스님 합법대 대중들과 함께 한 석산스님. 맨앞 중앙이 보광스님, 그 오른쪽 옆이 석산스님.

고 하는 것이 다 공덕이지요.

그곳 건봉사에서 염불을 배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그 시절, 만해스님이 건봉사 조실로 계셨는데 가끔 법문도 해주시고, 강원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만해스님은 법이 워낙 크신분이라 곁에 가 법기도 두렵었을 정도였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법에 떨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갈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생동안 경기도 평택 만기사에서 지내다가, 정전이 되자 해인사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화가 일어나기전이라 대처승들과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강원에서 공부를 하려면 쌀이나 돈을 내야 했어요. 피난다니던 가난한 중이 돈이며 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쌀과 돈 대신 건봉사에서 배운 염불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강원 공부를 했습니다. 사교과를 거처서 마쳤

“닭을 것이 없는 걸 알고 닭아야 바로 닭는 것이지 닭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닭으면 바로 닭지 못해요”

되던 일이나 도량석 목탁을 쳤는데 스님은 목탁소리가 나자마자 일어나서 세수하고, 도량석하는동안 비로전, 관음전,地藏전, 산신각, 팔상전, 탑전 등 각 당을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중전에 와서 제일 먼저 닭아게셨습니다.

내가 종을 다 치고나면 대중들이 예불 시간에 맞춰서 대중전에 하나씩씩 모여 드는데 동산스님은 추우나 더우나 항상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몸으로 실천으로 법문을 해 주셨던 겁니다.

동산스님의 특징이 바로 그와같은 신심이요, 또 하나가 도량청소입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공양이 끝나면 반드시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 조실스님이 도량청소를 하는데 여찌 대중이 안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70여명 되던 대중들이 부리나케 뛰어나와 빗자루질

게 있어서 닭는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매일 쓰는 마당에 뭐 딱히 쓸게 있었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빗자루로 쓸거든요. 그저 도량을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닭을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닭는 것이 바로 스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불법입니다.

범어사에서 지내다 보광스님이 돌아가시자 내가 가회동포교당을 맡게 되었는데 100평정도 되는 가정집을 개조해 사용했던 그곳을 정리하고, 지금 이곳 정법사에 부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온 이후 재가 있으면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사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계정에 삼학을 닭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불자도 이를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해야 합니다. 좌우명을 정해놓고 항상 염심히 닭는 것이 최선의 수행입니다. 염불은 예전처럼 못하지만 틈날때마다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붓글씨는 범어사 있을때 많이 써 보았는데 <반야심경>을 주로 씁니다. 한자한자 써나가다보면, 수행자로서의 내 삶을 공추세우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게 되고, 그 힘은 생활속에서 하루하루 나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나는 요즘도 방에서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내 방은 내가 직접 청소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자기자신에 엄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한시라도 흐트러져서는 안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계(戒)가 바로 종입니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모든 업을 닭고, 계율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불자에 게도 계율이 있었지요. 내 배우자외에는 율행을 하지말라는 한가지만 다르지 틀다 똑같습니다.

계율을 닭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중이지, 법문 잘한다고, 강 잘한다고, 염불 잘한다고 종이 아닙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성룡

<대한불교예술원장>

<상>

무속인이었던 어머니로 인해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집보다는 법당을, 아버지보다는 부처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며 자랐다. 부처님을 보면 울음을 그치고 절을 했을 정도였다. 숙명처럼 맺어진 불연은 절기 생명처럼 지금까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문경 운암사 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부터다. 불교학생회에 가입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속인의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유년기를 보내면서 서서히 무속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당의 아들'이란 멸칭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 때 무속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시공부를 했다. 힘없는 기도생활은 대학에 합격하면서 종지부를 찍었고, 축산학을 전공하게 된 나는 대불전에 가입했고 4년 여 동안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계림공업소에 취직했다. 그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광산을 직접 운영하게 됐다. 광산 운영권을 손에 쥐면서 끈끈했던 불연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왠지 마음은 항상 허전했다.

이런 느낌이 점점 깊어질 무렵 잘 운영될 듯한 광산이 갑자기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난생 처음 겪는 시련이었다. 인부들의 이우성, 여기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빚독촉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

사업부도로 1년여간의 타락생활

새삶과 재기위해 보궁기도 떠났다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결코 원망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속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위해 자식된 도리로 무언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 대한



했다. 결국 나는 술에 의지해 고난을 이겨내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한잔 술이 두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었다. 이같은 악순환은 가족도가 불어

지식을 습득,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힘이 되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부처님을 꼭 껴안기 위해 불교학생회에 가입했던 것이다.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후 <반야심경> 독경, 절 그리고 불교서적을 손 닿는 대로 탐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하면 할 수록 환희심이 나기 시작했다.

힘이 절로 난다는 느낌 보다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아련한 느낌이 더 강했다. 나는 대자대비한 불법의 바다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던 것이었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 시험을 보게 되었고,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후 나는 운명의 인연처럼 운암사로 들어가 비승비승의 기도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지 해종스님은 날다른 기도의 원력을 세우시고 실천하신 분이래 기도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스님과 함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로 일관했다. 해가 뜨면 법당에서, 해가 지면 골방에서 대학입

시간이 갈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상태로 치달고 있었다. 알콜에 의지해 극복해 보려던 내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술이 전부가 됐다. 심지어는 밤을 새워 술을 마시다 욕신의 고통을 참지못해 약국 앞에 쓰러져 잘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타락과 방황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던 어느날 해종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은 이런 생활은 육신과 정신만 파괴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보궁기도를 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전혀 귀에 안들어 왔다. 오직 빚독촉 아우성만 머리속에 가득했다.

스님은 며칠간 계속해서 뒤통사 다니며 다독이기도 하고, 육박기도기도 하며 점점 스러져가는 나의 정신을 꼭 잡아주셨다. 결국 나는 스님의 자비심으로 1년 여간의 타락생활을 접고, 새삶과 재기를 위해 강원 영월 사자산 법흥사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계속>

“오욕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수행도 헛일”

“자신에게 엄격해야 흐트러지지 않아요”

단해스님은 강사님들의 법문과는 달리 항상 선 법문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 먼저 주장자를 세 번 딱 치고는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곳을 향해 물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겁이 나서 나서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끄박 않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워낙 크신 분이셨지요.

해방 되기 1년전에 건봉사에서 서울로 나왔는데 은사인 보광스님의 가회동 건봉사포교당에서 사형인 설산스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모두들 들떠 가지고 온 장안에 군인들이 입는 광목천으로 만든 옷이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그 옷을 사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사인 보광스님은 가회동포교당에서 재가신도를 위한 포교활동을 하셨는데 그 밑에서 원주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6.25전쟁이 터졌고, 다시 피난

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범어사로 갔습니다. 범어사에서 노전생활하며 대교를 공부했습니다. 역시 염불도 가르쳤지요. 36살부터 41살까지 7년간 그곳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염불을 할 때면 동산스님도 그리고, 다들 염불잘한다고 감탄하곤 했지요. 듣는 사람마다 “스님이 염불하면 부처님이 하강한것 같다”면서 말이지요. 허허, 지금은 나이도 많이들고 목이 쉬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탐진치를 자꾸 부러지고 탐진체에 쌓여 가려서 정작 불성은 가려지고 중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래 그 당시에 바로 부처인데, 자꾸 자라가면서 탐진치가 쌓여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산스님 법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닭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닭는 것이지, 닭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산스님이 한갓 마당에 쓸개 있어서 쓴다고 보면 스님의 가르침 제대로 못알아 듣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닭을 것이 없는 걸 알고 닭아야 바로 닭는 것이지, 닭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닭으면 바로 닭지 못한다고 했어요. 본래 부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탐진치를 자꾸 부러지고 탐진체에 쌓여 가려서 정작 불성은 가려지고 중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래 그 당시에 바로 부처인데, 자꾸 자라가면서 탐진치가 쌓여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산스님 법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닭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닭는 것이지, 닭을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가을 호

지상강연 / 해가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④ - 釋강좌 담마 대사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불교계진단 10 / 불교계 영상문화의 현주소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한 불교 영상문화(영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영상포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調五位)』 두번째(중중)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사. 『중편조동오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상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하는 『중편조동오위』를 통해 일연 스님의 신사상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0 / 99년속문화의 해 복집 우리 절의 건축문화재 ② - 불국사, 둘로 만든 부처님 나라

특집 / 불서 번역,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지켜지는 漢典의 한글번역에 의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팔리어 원전의 번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 등 경전 번역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21세기 불교의 대표 경전 편찬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 佛典 번역과 우리의 현실
- 불경 번역오류의 예
- 불교계 번역의 문제점과 제도적 과제
- 새천년을 위한 『불경』 프로젝트 시급하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강의와 인터넷 불교대학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E-mail: bkpf@chollian.net

삼화사(철불·석탑)문화재 지정

축하 대법회 및 학술 발표회

귀의 삼보하움고

두타산 삼화사에서는 근간에 신라시대 문화재 철조조사나불(보물 제1292호)과 3층석탑(보물 제1277호)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삼화사와 동해시에서는 21세기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급진 지역 향토축제인 제16회 무릉제와 시계청 19주년을 기념하고, 문화재 지정 축하 법회와 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무부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최: 동해시 ■주관: 삼화사 시문화원 (0394-534-7661~3)

다음

축하법회

▶일시: 1999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두타산 삼화사 대적광전
▶중명: 오고신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김현해 큰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학술발표회

▶일시: 1999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주최: 두타산삼화사 삼화사의 민족정신

제 1 부

- 불교의 호국사상과 한국불교 - 정태희(전동국대학교수)
○삼화사의 역사적 성격과 민족정신 - 홍시성(불교신문사 주필)
○두타산의 현상과 역사상 - 이상수(관동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복제 민중호의 의병활동과 삼화사 - 이정철(삼척실업고교사)

제 2 부

- 토론 법산스님(동국대학교수)·차용걸(충북대학교수)
권각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의원)·방동인(관동대 사회과 교수)
김영기(강원일보 논설위원)
사회 김남현(관동대 사회과 교수)